

#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현황과 성격\*

변은진\*\*

- I. 머리말
- II.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현황
- III. 기관지 수록 기사의 종류와 성격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일제강점기 중앙과 지방의 유교 단체는 자체 기관지를 편찬하여 회원을 비롯한 각지의 유림들에게 자기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각종 논설이나 강설을 통해 총독부의 시정 등을 유학 지식과 결합해 교양하고자 했다. 또 이 기관지들은 전국의 유림들이 작성한 시문 등을 발표할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하였다. 이렇게 유교 단체를 결성하고 기관지를 출판하는 행위와 이로써 유지 재생산되는 유림 사회의 다양한 모습 자체가 바로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근대적 변용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중앙과 지방의 유교 단체에서 발행된 기관지 총 10종에 총 88개 권호의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한 것이다. 경학원의 『경학원잡지』, 대동사문회의 『대동사문회보』, 유도진흥회의 『유도』, 조선유교회의 『일월시보』, 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 강원도유도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명회의 『유도천명회보』, 전라남도유도창명회의 『창명』,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에서 발행한 『인도』와 『유교부식회회보』, 개성명륜회의 『명륜』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일월시보』와 『인도』, 『유교부식회회보』 정도를 제외한 모두는 관변적 내지 반관반민적 성격을 띠었다.

이 유교 단체 기관지들의 전체 면수를 합하면 9,000여 쪽에 달하며, 전체 상제 기사 건수는 6,600여 건에 달한다. 이를 대상으로 기관지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기사 종류의 구분, 언어별 현황, 주요 필진의 상황 등을 정리하였다. 언어별 현황을 보면, 전체 기사의 57% 정도가 순 한문, 37% 정도가 국한문이었다. 이는 당시 유교 단체 기관지가 대중정보보다는 일차적으로 유림 사회 내부의 지식과 정보 소통의 기능을 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순 한글 기사도 시도되었고, 전시체제기에는 국한문은 배제되고 한문과 일본어로만 간행되었다. 또한 확인되는 필자의 중복을 배제하고 보면 총 2,3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470여 명은 적어도 2회 이상 중복으로 참여한 주요 필진이었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경학원잡지, 대동사문회보, 유도, 일월시보, 유도천명회보, 창명, 인도, 유교부식회회보, 명륜

## I. 머리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유림(儒林)에<sup>1)</sup> 대해 통제와 회유를 적절하게 구사해가면서 이들을 자신들의

1) 원래 주로 ‘사림(士林)’으로 칭해지던 ‘유림’은 “조선사회를 이끌어간 지배계급이자 지식인 그룹”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된 한말

통치 영역 내로 포섭해나갔다. 일제 당국은 경학원(經學院)을 중심으로 조선 유림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3.1운동 이후에는 ‘문화정치’라는 미명 아래 민족 분열 정책을 펴면서 지방 사회에서 명망성을 지니고 있던 유림들에 대한 회유와 포섭을 진행하였다.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는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를 통해 전국의 유교 단체와<sup>2)</sup> 유림들을 통합해가면서 총력전체제 속으로 강압적으로 편입시켰다.

일제강점 초기인 이른바 무단통치기에 총독부는 경학원 외에 여타의 유교 단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3.1운동 이후 조선의 명망가에 대한 회유정책이 강화되면서 1920년대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여러 유교 단체가 조직되었다. 3.1운동으로 ‘퇴락한 지방의 민풍(民風)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는 교풍회(矯風會)·명륜회(明倫會)·모성회(慕聖會) 등 다양한 명칭의 조직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굵직한 조직만 해도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조선교풍회(朝鮮矯風會)·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조선유교회(朝鮮儒教會)·조선유도연합회·강원도유도천명회(江原道儒道闡明會)·전라남도유도창명회(全羅南道儒道彰明會)·인도공의소(人道公議所)·유교부식회(儒教扶植會)·평양대동유림회(平壤大同儒林會) 등 수많은 유교 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였다.

이 유교 단체들은 교화적·협력적 성격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실제로 그 내면에는 매우 복잡다기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전국 각지의 유림들은 나름의 지역적 토대 위에서 일제의 유교 정

---

이래 더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말·일제강점기에 “유교를 자신들의 신념체계로 받아들이고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유교지식인들”을 칭한다고 할 수 있다(정옥재, 『한말·일제하 유림 연구 - 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8, 13쪽).

- 2) 유교 지식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는 대체로 유림 단체·유교 단체 등으로 칭해지는데 여기서는 ‘유교 단체’로 통칭하였다.

책과 유림 정책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보였으며, 그 성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유림 개인은 적극적인 항일 독립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노골적인 친일 단체에 지도급 인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반일저항과 친일협력을 둘러싸고 유림 사회의 양립 현상도 나타났다.

사실상 일제강점기에 친일협력적인 유림의 활동과 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항일 독립 운동에 참여한 유림들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과<sup>3)</sup>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협력 활동이 소개되면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유교 단체들이 출판한 기관지의 현황과 그 성격을 개략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양적·질적 확산을 도모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학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교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기관지를 편찬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유림들에게 자기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교양함으로써 조선 사회 내에 유교 문화를 진작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대부분 일제의 식민통치라는 굴레 속에서 통치주체인 총독부의 목표와 의지에 맞물려 단체를 유지 존속해갔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들은 거의가 일제 협력 단체로 기능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교 단체에서 출간한 기관지의 기사 내용들에도 이러한 부분은 그대

3) 위원회에서는 개별 인물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보고서 외에도 이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 보고서와 사료집도 출간했는데, 여기에 유림계의 친일 협력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Ⅲ - 일제의 경제·사회 침탈과 친일협력』, 2009, 4장 4절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II - 일제강점기 유학계의 친일협력과 친일한시』, 2009).

로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교 단체의 결성과 기관지 출판’이라는 현상 자체가 바로 유교 문화의 근대적 변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창구이다. 그런데 이 기관지의 기사들은 대부분 한문 또는 국한문으로 되어 있어서(일제 말에는 일본어 기사도 있음), 지금까지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면이 있다. 오늘날 수많은 근현대 역사 자료들이 최소한 목록 정도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유교 단체 기관지는 거의 목록화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작성하고 기사의 종류를 분류하였다.<sup>4)</sup>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먼저 그 현황과 성격을 간략히 소개하려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의 기관지는 총 10종에 총 88개의 권호이다. 널리 알려진 『경학원잡지(經學院雜誌)』를 포함해 당시 중앙과 지방에서 발간된 10종의 유교 단체 기관지가 확인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를 다음 세 부분, 즉 첫째는 경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경학원잡지』(총 48개 호), 둘째는 이 외에 중앙 즉 경성(京城)에 본부를 두고 활동한 유교 단체들의 기관지 4종(총 27개 호), 셋째는 지방 단위 유교 단체들의 기관지 5종(총 13개 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경학원잡지』를 제외한 중앙의 기관지 4종에는 대동사문회의 『대동사문회보(大東斯文會報)』, 유도진흥회의 『유도(儒道)』, 조선유교회의 『일월시보(日月時報)』, 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儒道)』가 포함된다. 지방의 기관지 5종에는 강원도유도천명회의 『유도천명회보

4) 지금까지 수집한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 10종의 기사들에 대한 세부목록은 2020년 2월경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선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아울러 『창명』의 경우도 세부목록과 색인을 첨부한 영인본이 출판될 예정이다.

(『儒道闡明會報』), 전라남도유도창명회의 『창명(彰明)』,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에서 발행한 『인도(人道)』와 『유교부식회회보(儒敎扶植會會報)』, 개성명륜회의 『명륜(明倫)』이 포함된다.

## II.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현황

### 1. 『경학원잡지』

일제강점 이전의 조선 사회는 유교 이념에 기초해 양반유림이 지배하던 사회였고 식민지 조선 사회의 지도층 역시 대부분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강점한 일제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자신들의 통치구조 내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었다. 이에 총독부는 강점한 바로 다음 해인 1911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 73호로 총 17개 조에 달하는 「경학원규정」을 공포하여 기존의 성균관을 폐지하고 경학원을 설립하였다.<sup>5)</sup>

「경학원규정」 제1조는 “경학원은 조선총독에 속하여 경학(經學)을 강구하며, 문묘(文廟)를 제사하며, 풍교덕화(風敎德化)를 비보(裨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 경학원이 조선총독에 직속하는 기구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존에 조선의 공식적인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의 교육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주로 문묘제사와 사회 교화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였다. 설립 당시 초대 대제학(大提學)은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조선귀족’ 박제순(朴齊純), 부제학(副提學)은 이용직(李容植)이었다.

5) 일제당국이 굳이 ‘경학’이라는 명칭을 붙여 경학원을 설립한 배경에 대해서는 박영미, 「일제강점 초기 경학 연구의 한 흐름」(『漢文學論集』 46, 2017) 참조.

『경학원잡지』는 경학원의 공식 기관지로 출판되었다. 1913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1944년 4월 제48호에 이르기까지 총 48개의 호가 발간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발행된 전체 잡지들 가운데서도 매우 방대한 양에 속하는 것이었다. 창간호에 이용직이 쓴 서문을 보면, “윗자리에 있는 지도자가 멀리 생각하고 깊이 염려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며, 효열(孝烈)의 모범을 포창(褒彰)하며 … 특별히 경학원을 설립하여 문묘를 높이 받들어 유교를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기는 의를 드러낸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sup>6)</sup> 아울러 종래의 고원(高遠)한 경학에서 탈피하여 ‘실리실행(實理實行)의 군자지학(君子之學)’과 ‘실용실행(實用實行)의 진경학(眞經學)’을 지향한다고 밝혔다.<sup>7)</sup>

『경학원잡지』는 대체로 900~1,000부 가량 비매품으로 간행되었다. 잡지 뒤쪽에 실려 있는 「경학원잡지 편찬에 관한 요항」을 보면, 잡지는 경학원 직원, 각도 장관(지사)과 참여관(參與官), 부윤(府尹)·군수(郡守)·도사(島司), 각 군의 향교(鄕校) 직원(直員)와 관청, 전국의 주요 유림(기타 대제학의 필요로 인정하는 자) 등에게 배부되었다.<sup>8)</sup> 『경학원잡지』의 발행처는 줄곧 경학원이었으나,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변천을 거쳤다.<sup>9)</sup>

- 
- 6) 李容植, 「經學院雜誌序」, 《經學院雜誌》 제1호, 1913년 12월 5일, 1쪽.
  - 7) 《經學院雜誌》 제1호, 25쪽 및 28~29쪽 ; 정일균,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사회와 역사』 76, 2007, 39쪽.
  - 8) 전국 각지에 배부된 상황은 정옥재, 2008, 앞의 논문, 68쪽의 <표 III-5>에 실린 『경학원잡지』 제16호(1918.3)의 배부 현황표 참조.
  - 9) 《經學院雜誌》 각호, 《每日申報》 각호, 《朝鮮總督府官報》 각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각권, 한국근현대인물자료DB(국사편찬위원회), 그 외 신문기사 등을 참조하였다.

&lt;표 1&gt; 『경학원잡지』의 발행인 변천

호수	시기	발행인	경학원 직위	참고
제1호~제11호	1913.12~1916.6	이인직(李人植)	사성	신소설가, 언론인, 연극인
제12호~제15호	1916.12~1917.10	박치상(朴致祥)	직원, 사성	교사, 교장
제16호~제21호	1918.3~1921.3	정윤수(鄭崙秀)	사성	김윤식의 천거
제22호~제39호	1922.3~1935.10	이대영(李大榮)	직원, 사성, 부제학	감리서 주사
제40호~제43호	1936.8~1938.12	나일봉(羅一鳳)	직원, 사성	교사, '105인 사건' 연루(무죄)
제44호~제47호	1939.10~1943.1	윤병호(尹炳皓)	직원, 사성	
제48호	1944.4	김황진(金璜鎭)	사성, 부제학	

『경학원잡지』의 편찬장(編纂長) 겸 발행인은 경학원 대제학의 임명에 따라 사성(司成) 가운데 한 명이 맡도록 되어 있었다. 「경학원 규정」에 따르면, 경학원에는 직원으로 대제학 1명, 부제학 2명, 제주(祭酒) 5명, 사성 약간 명, 직원 약간 명을 두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 외에 “각 도에서 덕망 있는 자를 강사(講士)”로 임명하였다. 경학원 직원의 임명과 퇴진은 조선 총독이 직접 관할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관리였다. 1910~20년대에 경학원 사성은 대체로 2명, 1930년대 이후에는 3명 정도가 임명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1명이 기관지 발행을 전담했던 것이다.

위 표를 보면 이인직·정윤수·김황진은 처음부터 사성으로 임명되었고, 박치상·이대영·나일봉·윤병호는 처음에는 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사성으로 승진한 후 발행인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또 『경학원잡지』의 발행인은 대체로 사망 또는 노환으로 맡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초기에 발행인을 맡았던 이인직(1862~1916), 박치상(1866~1918), 정윤수(1872~1921)는 모두 사망으

로 인해 그 직을 맡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무려 13년여 동안 총 18개 호의 발행인을 맡았던 이대영(1874~1950)은 1936년 1월부터 경학원 부제학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sup>10)</sup>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나일봉은 1939년 3월 31일 부로,<sup>11)</sup> 윤병호는 1943년 4월 26일부로 경학원 사성을 의원면직(依願免職)하였기 때문에<sup>12)</sup> 더 이상 맡을 수가 없었다. 1870~80년대 출생이었으므로 아마도 노환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1930년대 이후에는 발행인이 바뀌면 대체로 곧바로 잡지를 발간하지 못하고 새롭게 진용을 정비하는 데 상당기간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경학원잡지』는 3월·6월·9월·12월로 연 4회 발간되는 계간지(季刊誌)를 표방했으나, 실제로 4회 모두 나온 경우는 1914년, 1915년, 1918년에 불과했다. 3회 나온 경우도 1916년과 1917년뿐이었다. 다시 말해서 『경학원잡지』가 처음 발간된 1910년대에만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졌으며, 나머지 해는 대체로 연 1~2회만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과 1942년에는 아예 한 호도 나오지 못했다. 1919년에는 3.1운동의 여파와 대제학 김윤식(金允植), 부제학 이용직이 연명한 독립청원서 발송 사건으로 간행되지 못했다. 『경학원잡지』의 표지에는 반드시 대제학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 친필로 서(署) 또는 첨(籤)이라고 서명해야만 출판될 수 있었다.<sup>13)</sup>

『경학원잡지』의 구성은 처음 창간호 때부터 서(序), 축사(祝辭),

10) 《東亞日報》 1936년 1월 21일자 「司令」. 이대영은 경학원 직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성을 거쳐 부제학까지 올라간 유일한 인물이었다(정옥재, 「20세기 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 -李大榮(1874~1950)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6, 2014, 269쪽).

11) 《每日申報》 1939년 4월 2일자 「經學院司成直員 一部更迭斷行」.

12) 《每日申報》 1943년 4월 29일자 「經學院副提學 發令」.

13) 정옥재, 2008, 앞의 논문, 67쪽.

논설(論說), 학술(學術), 문원(文苑), 사조(詞藻), 휘설(彙說), 본원기사(本院紀事) 등의 고정란을 두어 그 내부에 여러 기사들을 수록하였다. 이후 사전(祀典), 기적(紀蹟), 논문(論文), 법령(法令) 등 새로운 고정란이 추가되기도 했다. 본원기사 안에는 매호마다 지방보고(地方報告), 강연 원고를 수록한 강설(講說), 경학원의 활동을 정리한 일지대요(日誌大要) 등을 두었다. 제31호(1930.8)부터는 본원기사가 원중기사(院中紀事)와 명륜학원기사(明倫學院紀事)로 나뉘어 실렸다가, 제39호(1935.10)부터는 다시 본원기사와 명륜학원기사로 구분되었다. 명륜학원이 명륜전문학원으로 ‘승격’된 후에는 제46호(1941.12)부터 명륜전문학원기사란으로 바뀌었다.

지방보고를 본원기사 내에 포함했다가 별도로 지방보고란을 분리 신설한 것은 제41호(1937.2)부터였는데, 주로 효열 표창 등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많았다.<sup>14)</sup> 또 제44호(1939.10)부터는 지방보고란과 지방기사란도 구분되었다. 한편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인 제42호(1937.12)에는 ‘시국에 관한 건’이라는 란이, 제46호(1941.12)에는 유도연합회기사란이 포함되기도 했다. 참고로 『경학원잡지』의 전체 발행 호수와 기사 건수, 발행 호별 전체 면수의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경학원잡지』의 발행 호수와 전체 분량

권호	발행일	발행인	기사 수	면수	권호	발행일	발행인	기사 수	면수
1	1913.12.05	李人植	61	100	25	1924.12.25	李大榮	72	94
2	1914.03.25	李人植	40	108	26	1925.12.25	李大榮	74	104
3	1914.06.25	李人植	22	77	27	1926.12.25	李大榮	60	92

14) 이와는 별도로 제44호(1939.10)에는 가언선행(嘉言善行)이라는 란을 신설하여 최충(崔沖), 이퇴계(李退溪), 이율곡(李栗谷) 등의 행위를 소개하기도 했다.

4	1914.09.25	李人植	25	73	28	1927.12.25	李大榮	90	92
5	1914.12.25	李人植	23	102	29	1928.12.25	李大榮	90	90
6	1915.03.25	李人植	29	78	30	1929.12.25	李大榮	88	100
7	1915.06.25	李人植	19	87	31	1930.08.01	李大榮	76	66
8	1915.09.25	李人植	24	78	32	1930.12.27	李大榮	74	77
9	1915.12.25	李人植	45	92	33	1931.12.25	李大榮	103	64
10	1916.03.25	李人植	31	98	34	1932.03.31	李大榮	39	63
11	1916.06.25	李人植	31	92	35	1932.12.25	李大榮	104	81
12	1916.12.25	朴致祥	58	105	36	1933.12.25	李大榮	93	78
13	1917.03.25	朴致祥	26	78	37	1934.10.25	李大榮	124	77
14	1917.07.25	朴致祥	41	96	38	1935.03.30	李大榮	38	57
15	1917.10.15	朴致祥	40	88	39	1935.10.05	李大榮	70	66
16	1918.03.25	鄭崙秀	53	88	40	1936.08.25	羅一鳳	93	70
17	1918.07.25	鄭崙秀	39	86	41	1937.02.25	羅一鳳	50	71
18	1918.09.25	鄭崙秀	31	88	42	1937.12.25	羅一鳳	21	77
19	1918.12.25	鄭崙秀	46	88	43	1938.12.24	羅一鳳	102	76
20	1920.03.31	鄭崙秀	48	72	44	1939.10.05	尹炳皓	33	103
21	1921.03.10	鄭崙秀	38	105	45	1940.12.20	尹炳皓	104	160
22	1922.03.10	李大榮	58	87	46	1941.12.25	尹炳皓	50	80
23	1922.12.25	李大榮	70	95	47	1943.01.25	尹炳皓	32	60
24	1923.12.25	李大榮	65	100	48	1944.04.10	金璜鎭	37	67
전체 기사 수 합계 : 2,680건					전체 면수 합계 : 4,127쪽				

『경학원잡지』 48개 호의 세부기사 수는 총 2,680건, 전체 면수는 4,127쪽이다. 면수는 대체로 70~100쪽 정도인데, 1930년대 이후는 2단 편집을 하여 면수를 다소 줄인 것으로 보인다. 『경학원잡지』는 일종의 정부간행물로서 비매품(非賣品)이었기 때문에, 전시체제기 막바지에는 종이 등 물자 부족으로 편찬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음도 짐작된다.

위 표에서 보이는 2,680건이라는 기사 건수는 『경학원잡지』 각 호의 목차에서 소개한 기사를 합산한 게 아니라, 원문을 모두 확인하여 최대한 세부적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이다. 논설·문원·사조 등의 고정란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자가 다른 모든 것, 예컨대 아주 짧은 시문(詩文)의 경우에도 일일이 구분하여 각각을 한 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축사나 광고 등도 일일이 개별 건으로 취급하였다. 또 편의상 잡지 앞부분의 각종 사진이나 그림, 축필, 목차 등과 뒷부분의 편집 후기나 판권 사항, 또는 기사 중간에 편집부에서 박스로 처리한 간략한 교양용 격언(格言)이나 경구(警句) 등도 모두 별개의 기사 건수로 계량화한 것이다.<sup>15)</sup>

## 2. 중앙의 유교 단체 기관지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유교의 변화와 쇄신을 유도해갔다. 기존에 경학원에서 지방에 강사를 파견해 유림들을 통제 회유하려 했지만, 3.1운동으로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었다. 1920년대 이후 유교 단체가 생겨났다고 해서 경학원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경학원을 일종의 상급 기관으로 하여 여러 유교 단체를 조직해 지방의 유림들까지 분열시켜 흡수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16)</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선의 유림계 역시 기존 유교의 틀을 벗어난 변화를 추진해야만 했다. 문화 운동 차원에서 신도덕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체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유교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19년

15) 이러한 원칙은 이하 각 절에서 중앙이나 지방 단위 유교 단체 기관지의 기사 수 등의 현황을 집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원칙임을 밝혀둔다.

16) 정옥재, 2008, 앞의 논문, 95쪽.

11월 ‘덕성(德性)의 함양, 윤리의 존숭(尊崇), 애경상문(愛敬相問), 지식교환’ 등을 표방하고 설립된 대동문화사(大東文化社)였다. 이 새로운 움직임에 반대하며 “시세(時勢)의 악화를 개탄”하는 유림들은 이에 맞서 동인구락부(同寅俱樂部)를 조직하였다. 현실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지만, 두 단체 모두 유교와 유학에 근본을 둔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대동문화사는 기관지 편찬 등의 실질적인 활동은 없다가 이후 대동사문회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sup>17)</sup>

1919년 12월 결성된 대동사문회를 필두로 일제강점기 내내 중앙 즉 경성에서 크고 작은 유교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920년대에는 유도진흥회, 1930년대에는 조선유교회, 1940년대에는 조선유도연합회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에 활동한 조선유교회를 제외한<sup>18)</sup> 대부분의 단체들은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정무총감을 비롯해 학무국장 등 일본인 관료가 총재나 회장, 고문을 맡는 등 실제로 관변단체 내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지녔다. 중앙에서 조직된 이 단체들 역시 경학원

17) 성주현, 『식민지시기 민족종교와 민족운동』, 선인, 2013, 209~212쪽. 대동문화사의 발기인 및 임시의장인 홍긍섭(洪肯燮)과 고문인 오가키 다케오 [大垣丈夫]는 대동사문회의 발기인 및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대동문화사가 대동사문회의 조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18) 安淳煥의 노력과 기부로 조직된 조선유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유교의 종교화 운동을 추진했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지만, 일제 협력 유림과 반일적 유림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친일적 단체로 보기도 하고 민족적 단체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정육재, 2008, 12쪽의 각주48 참조). 조선유교회는 원래 잡지·서적의 발행과 도서관 건설, 일반사회의 風化 矯正과 유림의 폐습 개혁, 생활 향상을 위해 대중본위의 산업기관 건설 등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교육과 인재양성 활동만 수행했다고 한다(144쪽).

과 마찬가지로 유교관계 기관지 발행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 단체 기관지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단체들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표 3> 기관지를 발행한 중앙의 유교 단체

단체명	설립일	설립목적	주요인물	조직구성	주요활동
대동 사문회	1919. 12.5	儒道の 講明 *관변 단체 성격 강함	鄭萬朝, 魚允迪, 洪肯燮, 宋之憲, 崔永年, 李範喆, 朴魯學, 金正基, 尹用求 등	經義部·治 事部·景賢 部·도서부· 편찬부·서 무부	총독부의 적극 지원 경학원 사업 협력, 각 도·군 별 지회 조직(典事 임명), 강연회 개최, 도서 출판, 善 行旌褒, 기관지 발행 등
유도 진흥회	1920. 1.16	유도의 진흥, 世道の 進運 *관변 단체 성격 강함	申錫麟, 金榮漢, 閔哲勳, 朴齊斌, 尹喜求, 鄭鎮弘, 尹弼求, 朴箕陽, 鄭鳳時, 權純九 등 *영남 유림과 경성의 유림이 결합해 조직	본부(경성) 와 지회(도) 와 분회(군) 조직	총독부의 보조와 적극 지원, 중앙과 지방 관료의 참여 지회·분회 조직 활동, '내 지시찰단' 조직, 강연강습 회, 기관지 발행 등
조선 유교회	1932. 9.25	유교진리를 천 명하여 문화향 상을 기함	安淳煥, 宋之憲, 安寅植 등 *鹿洞書院에 기원 *일제 협력 유림과 반일적 유림이 모두 참여	總部(경 성)와 敎部 (지방) 총부: 2院 1 司 6部	지교부 설립, 유교의 종교 화 운동, 덕육 기관 설치와 인재양성, 녹동서원 명교 학원 운영, 기관지 발행 등
조선 유도 연합회	1939. 10.16	皇道 정신에 입각한 유도진 흥, 忠孝 道義 의 신념 고양 과 皇國國民의 단결 강화 *관변 단체	尹德榮(회장) 도지사가 각 도 연 합회의 회장 맡음: 俞萬兼(충북), 金 秉泰(황해), 李聖 根(충남), 孫永穆 (전북)과 다수의 일본인 도지사들	본부(경학 원 내)와 각 도의 연합 회와 지부 (府·郡·島) 본부: 총무 부·교화부· 교육부·편찬 부·경리부	각도의 유도연합회와 지부 결성, 경학원과 명륜전문 학원 확충을 통한 유도진 흥, 국민정신총동원조선 연맹에 가맹, 全鮮儒道大 會 개최로 황도정신 도모, 향교를 통해 지방청년단 사업 원조, 시국강연회·강 습회, 기관지 발행 등

19) 각 단체별로 자세한 내용은 정옥제, 2008, 앞의 논문, 94~125쪽 및 133~160쪽을 참조 바람.

지금까지 필자가 입수한 바로는 『경학원잡지』 외에 중앙에서 발행된 유교 단체 기관지는 대동사문회의 『대동사문회보』, 유도진흥회의 『유도』,<sup>20)</sup> 조선유교회의 『일월시보』, 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 등으로서 총 4종, 27개 권호가 있다. 전반적인 발행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앙의 유교 단체 기관지 권호를 모두 합하면 기사 건수는 2,473건, 면수는 3,522쪽에 달한다.<sup>21)</sup>

<표 4> 중앙의 유교 단체 기관지 발행 현황

기관지명	권호	발행일	발행인	발행단체	기사 수	면수
大東斯文會報	1	1920.04.30	崔永年	대동사문회	84	96
	2	1922.10.24	李海朝	대동사문회	94	117
	합계				178	213
儒道	1	1921.02.28	尹弼求	유도진흥회	217	153
	2	1921.05.31	尹弼求	유도진흥회	83	130
	3	1921.07.31	尹弼求	유도진흥회	64	120
	4	1921.12.03	鄭鎭弘	유도진흥회	38	122
	5	1922.01.30	鄭鎭弘	유도진흥회	65	133
	6	1922.03.31	鄭鎭弘	유도진흥회	37	108
	7	1922.05.31	鄭鎭弘	유도진흥회	54	112
	8	1922.07.31	鄭鎭弘	유도진흥회	73	104
	9	1922.10.01	鄭鎭弘	유도진흥회	71	104
	10	1922.11.30	鄭鎭弘	유도진흥회	51	97
	14	1924.12.01	鄭鎭弘	유도진흥회	62	102

20) 1925년 1월 제15호를 마지막으로 『유도』는 더 이상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도진흥회에서는 이각중(李覺鍾)을 중심으로 사회교화를 표방한 월간지 『신민(新民)』을 창간하였다(임경석,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논형, 2010, ‘신민’ 항목 참조). 이 『신민』은 유교잡지의 성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21) 기사 건수를 계량화하는 원칙은 앞의 각주15 부분과 동일함.

	15	1925.01.30	鄭鎭弘	유도진흥회	69	92
	합계				884	1,377
日月時報	1	1935.02.08	朴淵祚	조선유교회	176	229
	2	1935.04.25	朴淵祚	조선유교회	126	227
	3	1935.05.30	朴淵祚	조선유교회	203	200
	4	1935.06.30	朴淵祚	조선유교회	98	194
	5	1935.09.30	朴淵祚	조선유교회	165	146
	6	1936.02.09	朴淵祚	조선유교회	302	158
	합계				1,070	1,154
儒道	1	1942.03.01	可知清次郎	조선유도연합회	48	74
	2	1942.10.01	可知清次郎	조선유도연합회	47	93
	3	1943.01.10	可知清次郎	조선유도연합회	40	126
	4	1943.01.10	可知清次郎	조선유도연합회	58	125
	5	1943.11.01	可知清次郎	조선유도연합회	78	122
	6	1944.04.01	可知清次郎	조선유도연합회	22	93
	7	1944.11.05	可知清次郎	조선유도연합회	48	145
	합계				341	778
전체 기사 수 합계 : 2,473건					전체 면수 합계 : 3,522쪽	

유도진흥회의 『유도』는 『경학원잡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호수가 발행되어 총 15호까지 확인된다. 하지만 11~13호는 필자가 아직 입수하지 못하여,<sup>22)</sup> 여기서는 총 12개호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 『유도』를 제외한 여타의 기관지는 대체로 발행 시기가 한두 해 정도로 짧게 끝난 것 같다. 이는 반관반민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이 쉽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

22) 『유도』 11~12호는 현재 재단법인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정리 중’이라 확인하지 못하였다. 13호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 당국의 관변단체를 통한 조선 유림 포섭이 그리 원활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대동사문회보』와 『유도』는 모두 대동인쇄주식회사 또는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되었다. 『대동사문회보』의 정가는 40전이였으며, 『유도』는 면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0~500전 정도였던 것 같다.<sup>23)</sup> 『유도』의 면수가 조금 더 많다 해도 정가가 10배가량 차이가 난 것은 매우 특이하다. 어쨌든 이 점에서도 『유도』가 대중잡지를 지향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식 유림층을 대상으로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월시보사에서 간행된 『일월시보』는 대동인쇄소 등에서 인쇄되었는데, 월 구독료를 30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 월간지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는 처음에는 선광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되다가 제4호부터는 매일신보사 인쇄부에서 인쇄되었다. 조선유도연합회가 총독부의 정식 관변단체였던 관계로 『유도』는 『경학원잡지』처럼 비매품으로 발행되었다.

### 3. 지방의 유교 단체 기관지

지방의 유교 단체 기관지로는 현재까지 총 5종에 13개 호를 입수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개성부(開城府) 등 4개 시·도의 잡지이다. 1920년대에 춘천에서 발행된 강원도유도천명회의 『유도천명회보』, 광주에서 발행된 전라남도유도창명회의 『창명』, 충남 홍성에서 발행된 유교부식회의 『인도』와 『유교부식회회보』 2종과 전시체제기인 1939년에 개성명륜회에서 발행된 『명륜

23) 이는 『유도』 3호(1921.7.31.)와 15호(1925.1.30.)의 판권사항에서 확인한 것이다. 위 표를 보면 3호가 비교적 많은 지면, 15호가 비교적 적은 지면에 속한다.

』이 있었다.

지방의 유교 단체들 역시 1920년대 이후 경성에서 대동사문회와 유도진흥회가 조직되는 데 발맞춰 유사한 성격의 단체로 결성되기 시작했다.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1920년 6월 29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7호로 각 도지사·부윤·군수·도사에게 동양 고래의 도덕의 근원인 유도의 진흥과 교화를 도모할 것을 지시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sup>24)</sup> 따라서 3.1운동 이후 ‘악화’된 지방 민심을 수습하고 총독부의 시정방침을 선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기관지를 발행한 지방의 유교 단체들 가운데 1929년 충남 홍성에서 조직된 유교부식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중앙의 유교 단체들처럼 도·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도지사나 참여관(參與官)을 비롯한 일본인 관료가 적극 참여한 관변단체의 성격을 지녔다. 이 단체들 역시 지회를 조직하고 기관지를 발행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 먼저 지방의 유교 단체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5)</sup>

<표 5> 기관지를 발행한 지방의 유교 단체

단체명	설립일	설립목적	주요인물	조직구성	주요활동
강원도 유도 천명회	1921.8.8. *7.27~8.8 춘천·원주·철	유도를 闡明하여 동양도덕의 眞原 발휘, 문화의 향상	李鶴圭, 金祥演, 閔熹植, 李起鍾, 沈相潤 등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편집원 평의원회	도당국의 적극 지 원과 관료들의 참 여, 경학원과 긴

24) 김봉곤, 「일제의 종교정책과 유교 - 전남의 유도창명회와 관련하여」, 『한국종교』 40, 2016, 156쪽.

25) 강원도유도천명회와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 대해서는 정옥재(2008), 앞의 논문, 125~133쪽 ; 성주현(2013), 앞의 책, 231~248쪽 ; 김봉곤(2016), 위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에 대해서는 김상기의 「한말 일제하 洪城지역 儒林의 형성과 항일민족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31, 2004)을, 개성명륜회에 대해서는 『明倫』 창간호(1939.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한 관련 논지와 자료를 참조 바람.

	원·강릉 등지에서 설립협의회 개최	*半官半民	도지사: 元應常, 申錫麟	밀한 관계 지회 설치, 회보 간행, 강연·講話, 효열 표창 등
전라남도 유도 창명회	1922.3.25. ~26	유도의 本旨 창명, 道德尊崇, 倫理講明, 鄉約尊施, 교 육보급, 문화향상, 時務簡隸 * 半官半民	李載亮, 朴鳳柱, 金靑煥, 石鎭衡 등 도지사: 元應常	회장, 부회장, 총무, 평의원회, 도덕부, 교화부, 시무부, 서무부
유교 부식회 (충남 홍성)	1927.5.5. *파리장서운동 참여자 중심의 人道公議所 (1920.5)를 계승	유교의 진흥을 통해 大公大同의 세계 건설	金股東, 李相麟, 吳錫禹, 李禹植, 金魯東, 成元慶, 田容彥, 金益漢, 金宇鉉, 黃侁性, 金環泰 등	회장, 총무, 재무, 간사, 서기, 고문. 시무부, 재무부, 문화부, 심찰부, 선전부
개성 명륜회	1938.8.8.	鄉黨의 친목 도모, 유교의 진흥으로 人文精華의 발휘와 良風美俗의 향상을 도모 *관변단체	孔聖學, 李箕紹, 金正浩, 禹壽淵, 秦永昌 등 *宋文華(개성 부운)의 적극 지원	회장, 부회장, 간사, 서기
				본부회관 설치 (홍성읍 오관리), 강연회, 지회 설치, 유교연 구회 설치, 明倫私塾(태안), 人道社 설립, 기관지 간행
				강연·강습회, 향약 장려사업, 倫理經學에 관한 잡지 간행, 獎學사업, 국민정신 총동원개성명륜회연맹 결성(개성문묘 내)

지방에서 발행된 유교 단체 기관지 총 5종, 13개 권호의 전반적인 발행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를 모두 합하면 기사 건수는 1,511건, 면수는 1,598쪽 정도 된다.<sup>26)</sup>

26) 기사 건수를 계량화하는 원칙은 앞의 각주15 부분과 동일함.

<표 6> 지방의 유교 단체 기관지 발행 현황

기관지명	권호	발행일	발행인	발행단체	기사 수	면수
儒道闡明會報	1	1922.09.01	李鶴圭	강원도유도천명회	97	101
	2	1923.04.01	李鶴圭	강원도유도천명회	94	70
	합계				191	171
彰明	1	1923.07.05	高彦柱	전라남도유도창명회	109	73
	2	1923.11.15	鄭國采	전라남도유도창명회	121	89
	3	1924.04.30	鄭國采	전라남도유도창명회	245	153
	4	1924.09.10	鄭國采	전라남도유도창명회	216	90
	5	1925.01.10	鄭國采	전라남도유도창명회	121	95
	합계				812	500
人道	3·4	1929.09.25	金殷東	유교부식회(홍성)	163	278
	5	1929.11.06	金殷東	유교부식회(홍성)	73	168
	6	1929.12.06	金殷東	유교부식회(홍성)	80	193
	8(2-1)	1930.10.20	金殷東	유교부식회(홍성)	99	176
	합계				415	815
儒教扶植會會報	1	1930.11.07	吳錫禹	유교부식회(홍성)	36	44
明倫	1	1939.02.15	孔聖學	개성명륜회	57	68
전체 기사 수 합계 : 1,511건				전체 면수 합계 : 1,598쪽		

1921년 7~8월에 강원도 각지에서 결성된<sup>27)</sup> 유도천명회에서는 1922년 9월과 19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도천명회보』를 발행하였다. 제2호를 끝으로 『회보』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지만,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해 보면 강원도유도천명회의 활동은 192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사실상 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1930년 무렵까지도 단체는 해체하지 않고 명목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

27) 강원도유도천명회의 결성은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의 기사로는 이미 1920년 11월부터 확인된다(《每日申報》 1920년 11월 27일자 「宣傳機關」).

은 1930년 8월 27일 춘천에서 관동명덕회(關東明德會)가 설립될 때 기존의 유교천명회를 폐지할 것인지, 자연 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를 논의한 데서 알 수 있다.<sup>28)</sup>

전라남도유도창명회의 활동 역시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해 보면, 강원도유도천명회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 중반 무렵까지 확인된다. 다만 제주지회처럼 1931년 초까지도 지회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sup>29)</sup> 광주에서 발행된 『창명』은 1923년 7월 창간호부터 1925년 1월 제5호까지 지방 유교 단체의 기관지들 가운데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발간된 편이었다. 위 표를 보면, 발행주기도 4개월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정가도 계속 한 부에 30전을 유지하였다. 이는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자체가 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고, 기관지의 편집부터 인쇄까지 모두 광주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전남 각지에 유도창명회의 기관지로 배부되다시피 한 『창명』은 사실상 구독자들 대부분이 구독료 30전을 내지 않았고, 결국은 5호를 끝으로 더 이상 간행되지 못하였다. 『창명』은 지회 활동이 활발했던 장성·해남·화순·완도·여수·광주 등지에서 특히 많이 구독하였다. 그런데 『창명』이 간행되지 못한 배경이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발행 횟수가 늘어가면서 사실상 “유도를 창명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정부 당국의 홍보지로 전락하는 현상”을 띠면서, “결과적으로 유림들이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문화통치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을 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저항을 보여주지 못하고 굴종”하였던 데에도<sup>30)</sup> 그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유도천명회와 유도창명회가 3.1운동 이후 1920년대 초에 일제당

28) 《每日申報》 1930년 9월 1일자 「彝倫扶持를 綱領으로 關東明德會創立」.

29) 《每日申報》 1931년 8월 30일자 「貴日儒林總會」.

30) 김봉곤, 2016, 앞의 논문, 173~174쪽.

국의 ‘문화정치’에 힘입어 관변단체적 성격을 띠고 조직되었다면, 1920년대 후반에 활동한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는 출발부터 성격이 다소 달랐다. 이 단체는 이른바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김복한(金福漢)을 중심으로 1920년 5월 조직된 인도공의소(人道公議所)에 그 연원을 두고 있었다. 인도공의소는 본부가 경성에 있었지만 실제 활동은 충남 홍성의 유림들이 중심이었다. 김복한이 사망한 후 1927년 5월 그의 아들 김은동(金殷東)이 홍성의 유림들을 재결집하여 조직한 단체가 바로 유교부식회였다.<sup>31)</sup>

유교부식회에서는 1929년 1월 29일 기관지 간행을 위해 홍성에 인도사(人道社)라는 출판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월간지를 지향한 『인도』와 『유교부식회회보』를 간행하였다. 『인도』는 위 표에서 보이는 호수 외에도 1929년 6월에 창간호를, 7월에 제2호를, 1930년 1월에 제7호를 간행했다고 한다.<sup>32)</sup> 홍성에서 편찬된 『인도』는 회원 황일성(黃侁性)이 예산(禮山)에서 경영하는 예산인쇄소에서 인쇄되었으며, 정가는 3·4합병호만 50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40전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유교 단체 기관지들과 달리 『인도』는 창간호부터 일제 당국의 검열로 원고 일부가 삭제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다. 이는 다른 호수도 마찬가지였으며, 독자투고란 등은 아예 전문이 삭제되기도 했다. 게다가 1930년 들어서 유교부식회는 여타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집회를 금지당하는 등의 탄압을 받아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워졌다.<sup>33)</sup> 이러한 상황에서 유교부식회에서는 제7호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인도』의 갱소호(更甦號) 즉 제8호(제2

31) 김상기, 2004, 앞의 논문, 9쪽.

32) 김상기, 위의 논문, 12~13쪽 및 각주49. 이 논문에 따르면, 『인도』 1~2호와 7호는 현재 김상기 선생이 소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필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득이하게 그 외의 호수만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보완을 기대한다.

33) <東亞日報> 1930년 11월 1일자 「洪城集會禁止」.

권 제1호)를 속간하고 『유교부식회회보』 제1호를 발행하였다. 이 회보는 각지의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용도로 그해 여름 전부터 준비되었다.<sup>34)</sup> 하지만 이후 『인도』와 『유교부식회회보』 모두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고, 1931년 12월 16일 부로 유교부식회는 해산되었다.<sup>35)</sup>

1939년 2월 13일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명륜』은 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전시체제기에 발행된 기관지이다. 현재 창간호만 확인된다. 편집 겸 발행인은 개성 일대의 거부(巨富)이자 김택영(金澤榮)의 문인이며, 경학원 사성과 개성명륜회 회장을 맡은 공성학(孔聖學)이었다. 개성명륜회 자체가 부윤 송문화(宋文華)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개성 일대 유림을 총망라하여 조직되었고 이후 국민정신총동원개성명륜회연맹(國民精神總動員開城明倫會聯盟)을 결성하는 주체가 되었던 만큼, 형식적인 면에서는 관변 단체로 봐도 무방하다. 『명륜』의 발행소도 개성부청(開城府廳)이었으며, 경성의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되었으나 비매품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sup>36)</sup>

이러한 성격의 개성명륜회가 조직된 것에 대해 당시 개성의 대표적인 지방신문인 『고려시보(高麗時報)』에서 다소 우려 섞인 사실을 1면에 게재하기도 했다.<sup>37)</sup> 다만 개성명륜회를 이끌던 공성학은 한 편으로는 일제에 협력하면서도<sup>38)</sup>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 말까지 항

34) 《中外日報》 1930년 8월 24일자 「儒敎扶植 會報發行 만여명회원에게 무료로진정코자」.

35) 《中央日報》 1931년 12월 23일자 「洪城儒敎扶植會 成果업시 解散 아모한일업시 해산」.

36) 《明倫》 창간호(1939.2.15.)의 판권사항.

37) 《高麗時報》 1938년 10월 1일자 「社說, 開城明倫會組織의 報를 듣고」.

38) 이에 대해서는 박영미, 「孔聖學의 『湯島紀行』에 대하여」(『漢文學報』 32, 2015) 참조. 공성학은 1943년 경학원 부제학에까지 오른다.

일 비밀결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도 보인다.<sup>39)</sup> 그래서인지 몰라도 『명륜』은 전시체제기에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구성 면에서 시국관계 기사를 최소화하고 유교 및 일반 교양에 관한 기사를 중심에 두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

### Ⅲ. 기관지 수록 기사의 종류와 성격

#### 1. 전체 기사의 종류 구분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 10종 88개 권호의 세부기사 건수는 총 6,664건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이 건수는 단순히 잡지 각호의 목차를 합산한 게 아니라, 모든 사항을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여 합산한 것이다.<sup>40)</sup> 여기서는 먼저 이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각 기사의 성격에 따라 몇 종류로 분류해 보았다. 이 역시 잡지 자체의 고정란 분류에 따르지 않고 필자가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설정해 분류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39) 공성학은 1943~45년에 서울과 경기도 포천의 백운산을 근거지로 산악대 등을 조직하여 독립과 건국을 준비했던 항일비밀결사 ‘조선민족해방협동당’에 물자를 지원했다고 한다. 협동당은 일제말기에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가운데 여운형 중심의 조선건국동맹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직이었다(심지연, 『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 격랑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노촌 이구영 선생의 팔십 년 이야기』, 소나무, 2001, 385~386쪽; 변은진,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 선인, 2018, 303쪽).

40)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원문을 모두 확인하여 필자가 다른 모든 건을 세부적으로 처리하였다. 예컨대 아주 짧은 시문이나 축사나 광고, 각종 사진이나 그림, 목차나 편집 후기나 판권 사항, 기사 중간에 별개로 들어간 간략한 교양용 격언이나 경구 등을 모두 개별 기사 건수로 계량화한 것이다.

<표 7> 유교 단체 기관지의 기사 종류 구분(전체)

기관지명	간행사	축사	논설	강설	문예	지방	기사	법규	알림	광고	이미지	합계
경학원잡지	12	7	277	149	683	1,034	293	50	150	0	25	2,680
대동사문회보	2	20	14	3	91	20	11	2	7	7	1	178
유도(1921)	3	29	248	0	386	41	93	7	48	27	2	884
일월시보	2	566	110	74	95	46	51	10	41	25	50	1,070
유도(1942)	7	0	77	0	160	9	30	0	32	0	26	341
합계	14	615	449	77	732	116	185	19	128	59	79	2,473
유도천명회보	3	11	34	4	65	38	26	2	8	0	0	191
창명	3	38	49	3	572	45	30	13	47	2	10	812
인도	4	116	71	7	128	1	28	1	43	8	9	416
유교부식회회보	1	5	6	0	10	0	3	4	6	0	0	35
명륜	2	5	12	0	19	9	3	2	5	0	0	57
합계	13	175	172	14	794	93	90	22	109	10	19	1,511
<b>총합계</b>	<b>39</b>	<b>797</b>	<b>898</b>	<b>240</b>	<b>2,209</b>	<b>1,243</b>	<b>568</b>	<b>91</b>	<b>387</b>	<b>69</b>	<b>123</b>	<b>6,664</b>

- 간행사 : 권두언, 발간사, 간행사 등
- 축사 : 해당 유교 단체의 설립과 기관지 발행을 축하하는 일체의 표현
- 논설 : 일반적 논설, 소논문 성격의 글, 논리적인 설명문, 역사나 인물에 관한 글 등
- 강설 : 강연이나 강설의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글
- 문예 : 시, 문장, 수필, 격언, 옛글, 기행문, 시찰감상문 등 문학적 성격의 모든 글
- 지방 : 지방 관련 기사 일체(지방 단위 기관지의 해당 단체 활동 기사도 포함)
- 기사 : 지방 기사를 제외한 일반 기사. 교양용 설명 기사, 소개 기사, 통계 소개 등

- 법규 : 유교 단체 관련 규정과 규칙, 총독부 등의 훈령이나 법규, 규칙 등
- 알림 : 편집부 등 발행 주체 측에서 독자에게 알리거나 선전하는 모든 내용(목차, 사고, 투고, 판권 등)
- 광고 : 상업 광고 일체
- 이미지 : 사진, 그림, 글씨, 지도, 배치도 등

위에서 보듯이 기사 종류의 범주는 간행사, 축사, 논설, 강설, 문예, 지방(기사), (일반)기사, 법규, 알림, (상업)광고, 이미지 등 총 11개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성격의 글이 수록되어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 것임을 밝혀둔다. 먼저 이 글에서 다룬 기관지가 총 88개 권호임에도 불구하고 ‘간행사’가 39건인 데서, 창간호나 특정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특별히 발간사를 쓰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개 호에 둘 이상 있는 것은 2인 이상이 쓴 경우이다. 예컨대 창간호만 존재하는 『명륜』은 편집부에서 권두언을 쓰고 개성명륜회장이자 발행인인 공성학이 별도로 창간사를 썼기 때문에 2건으로 된 것이다.

비교적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축사’의 경우 다소 긴 논설문이나 짧은 시문 형태로 쓴 글도 있지만, 한 면 내에 이름과 주소만 명기하여 네임카드 형태로 여러 건이 수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 표를 보면, 중앙의 권위 있는 기관지인 『경학원잡지』는 거의 축사가 없으며, 관변적 성격이 강한 『대동사문회보』나 『유도』, 『유도천명회보』, 『창명』 등도 역시 그러한 편이다. 이에 반해 관변단체의 성격이 약한 조선유교회의 『일월시보』나 유교부식회의 『인도』는 축사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나 『일월시보』가 발간된 것은 식민지 조선 사회 내에서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중반의 시기이다. 당시 일제

는 만주를 침략하고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는 등으로 독자적인 침략의 행보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1920년대 초중반까지 지나치게 관변적 다시 말해서 일제협력적 성격으로만 기울던 유교 단체들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와 환멸을 느낀 당대 유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유교 단체 기관지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것은 바로 ‘논설’이다. 사실상 논설은 한 편당 평균 3~4쪽 이상, 길게는 10여 쪽 이상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유학의 도의를 설명하고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는 내용인데, 그 외에도 중국이나 조선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설명하는 계몽적 성격의 글도 논설에 포함시켰다. 논설과 성격은 비슷하나 자체 강연회 등을 통해 언급되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은 별도로 ‘강설’에 포함시켰다. 특히 경학원은 전국 각지에 강사를 두어 강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학원잡지』에는 비교적 강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위 표를 보면, 일반적인 논설은 중앙 유교 단체의 기관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전체 기사 건수의 1/3을 차지하는 ‘문예’의 경우, 일정한 시제(詩題) 아래 지어진 짧은 시가 대부분이어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다. 전국 각지의 유림들은 각종 시회(詩會)나 대회 등에 참석하여 시문을 짓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림임을 입증하고 자위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한시(漢詩)나 문장 외에도 소설, 에세이 성격의 글, 시찰이나 여행 기행문이나 감상문 등 문학 작품의 성격의 지닌 일체의 글을 모두 ‘문예’에 포함시켰다.

위 표의 ‘지방’과 ‘기사’는 각각 지방 기사와 일반 기사를 집계한 것이다. 유교 단체 기관지가 갖는 근대 잡지로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범주가 바로 이 기사 부분이다. 일반 기사에는 총독부의 시정방침, 유교 단체의 활동, 세계 각국의 정세나 특이한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도 있다. 또 예컨대 위생 관련 기사처럼 일반 대중잡지

와 같은 계몽적 성격의 글을 신는 경우도 있다. 지방 기사는 지방 유교 단체의 상황,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한 활동 등을 보여준다. 지방 기사의 절대다수는 전국 각지의 효열(孝烈)에 대한 소개와 표창 등에 관한 것이다. 『경학원잡지』는 지방 기사가 전체 건수에서도 가장 높은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규’의 경우, 해당 단체 자체의 규정이나 규칙, 「향교재산관리 규칙」처럼 총독부에서 공포한 관계 법령 등을 포함한다. ‘알림’에는 일반적인 목차나 편집 후기나 판권 사항 외에도 회원과 독자에게 알리는 각종 사고(社告), 투고 홍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미지’에는 주로 잡지 앞부분에 실려 있는 총독이나 정무총감, ‘조선귀족’이나 경학원 간부 등의 사진 또는 화보, 이들의 그림이나 글씨, 회관이나 관계된 건물의 사진 등이 포함된다. 잡지 중간에 실려 있는 각종 사진이나 화보, 그림, 도표 등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유교 단체 기관지에는 일반 잡지와 달리 상업광고가 별로 실려 있지 않다. 비교적 오랜 기간 간행된 『유도』(1921)와 상대적으로 관변적 성격이 덜한 『일월시보』나 『인도』 등에서 주로 확인된다.

## 2. 언어별 현황과 성격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에 수록된 세부기사들은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고 집필되었다. 먼저 전체 기사의 언어별 현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sup>41)</sup>

41) 예컨대 사진 등 이미지만 수록되어 언어의 구분이 전혀 불가능한 서너 건의 기사가 있는데, 이는 편의상 ‘국한문’으로 처리했다.

<표 8> 전체 기사의 언어별 현황

기관지명	발행기간	기사별 언어				
		한문	국한문	국문	일문	합계
경학원잡지	1913.2~1944.4	1,347	1,136	0	197	2,680
대동사문회보	1920.4~1922.10	157	21	0	0	178
유도(1921)	1921.2~1925.1	418	448	15	3	884
일월시보	1935.2~1936.2	677	373	11	9	1,070
유도(1942)	1942.3~1944.11	178	1	0	162	341
합계		1,430	843	26	174	2,473
유도천명회회보	1922.9~1923.4	111	80	0	0	191
창명	1923.7~1925.1	652	159	0	1	812
인도	1929.6~1930.10	196	220	0	0	416
유교부식회회보	1930.11	18	12	5	0	35
명륜	1939.2	20	34	0	3	57
합계		997	505	5	4	1,511
<b>총합계</b>		<b>3,774</b>	<b>2,484</b>	<b>31</b>	<b>375</b>	<b>6,664</b>

유림들의 잡지인 만큼 전체 기사의 56.6%에 해당되는 3,774건이 순 한문이다. 한말 이래 유림들 사이에서도 국한문 글쓰기가 퍼져간 것을 배경으로, 그 다음으로는 국한문이 2,484건으로 37.3%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체 기사의 약 94%가 한문 내지는 국한문이었다. 이 점은 유교 단체 기관지가 기본적으로 계몽 등 대중성을 지향하기보다는 유림 사회 내에서 상호간에 지식과 정보의 소통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뜻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920년대 중반 무렵에 발행된 『유도』 14~15호로 가면 순 한글 기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편집부에서 14호 맨 뒤의 「끝말」과 15호 맨 앞의 새해 인사를 아예 순 한글로 쓴 것으로 보아, 한글 글쓰기는 당시 『유도』 편집진의 의도적인 행위

였던 것으로 보인다. 14~15호에는 새롭게 ‘부인란’이 신설되어 순 한글(한자 괄호)로 기사가 작성되었다.<sup>42)</sup> 이는 『유도』 잡지가 여성 층에게까지 읽히기를 바라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15호에는 ‘개탄생’이라는 필명으로 「우리 무산자는 절용심이 부족함」이라는 순 한글 기사가 게재되었다.<sup>43)</sup> 전국의 유림들을 대상으로 하던 『유도』가 여성과 무산자에까지 눈을 돌려 교양 계몽하는 대중지의 성격을 모색한 게 아닐까 추측된다. 왜냐하면 1920년대 중반에는 조선 내에서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운동 등 대중적 차원의 부문 운동이 조직화된 시기였고, 또 이 시기 『유도』는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유도』는 15호를 끝으로 더 이상 발행되지 못했던 것 같다.<sup>44)</sup>

순 한글로 기사를 쓴 것은 1930년대 초중반의 『유교부식회회보』와 『일월시보』에서도 시도되었다. 『유교부식회회보』 창간호와 『일월시보』 제4호(1935.6), 5호(1935.9), 6호(1936.2)에 순 한글 기사가 수록되었다. 아래에서 보듯이 제목은 대체로 국한문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원문은 모두 순 한글이다. 이러한 시도는 주로 논설·강설·문예에서 이루어졌다.

- 
- 42) 『유도』 제14호(1924.12) 「婦人欄」의 내용은 임산부에 관한 사항들이며 (92~98쪽), 제15호(1925.1) 「부인란」의 기사는 「학식의 필요」와 「손님의 접대」 등이다(60~64쪽).
- 43) 개탄생, 「우리무산자는절용심이부족함」, 《儒道》 제15호, 1925년 1월, 78~79쪽.
- 44)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창명』의 경우 순 한글 기사는 없지만, 유도창명회에서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2,000부를 출판한 『회중논어(懷中論語)』는 한문 뒤에 한글로 뜻을 풀이해두었다(김봉곤, 2016, 앞의 논문, 174~175쪽).

<표 9> 『유교부식회회보』와 『일월시보』에 실린 순 한글 기사 목록

기사 종류	기사명(원문)	기사명(한글)	고정란	저자	출전	발행일	시작쪽
논설	發刊에 臨하야	발간에 임하여		田溶或	유교부식회회보 1	1929. 09.25	2
논설	儒敎는무엇인가	유교는 무엇인가		黃侁性	유교부식회회보 1	1929. 09.25	9
논설	공부자의 탄신을 기념하자	공부자의 탄신을 기념하자		黃禮性	유교부식회회보 1	1929. 09.25	14
문예	格言	격언			유교부식회회보 1	1929. 09.25	36
문예	예전사람의 착한 행실	예전 사람의 착한 행실			유교부식회회보 1	1929. 09.25	37
논설	人道는卽사람의 福樂地이니實行 하여볼지어다	인도는 즉 사람의 복락지이니 실행 하여 볼지어다		敬齋	일월시보 4	1935. 06.30	64
강설	海東小學(譯)	해동소학(역)		崔俊八	일월시보 4	1935. 06.30	123
강설	論語講義	논어강의		張嫻	일월시보 4	1935. 06.30	166
문예	伯夷頌	백이송		李正曦	일월시보 4	1935. 06.30	174
논설	人道書(續). 人道 는卽 사람의福樂 地이니實行하여 볼지어다	인도서(속). 인도 는 즉 사람의 복락 지이니 실행하여 볼지어다		敬齋	일월시보 5	1935. 09.30	11
논설	儒敎青年大衆에 게一言함	유교 청년 대중에 게 한마디 함		李中正	일월시보 5	1935. 09.30	24
강설	論語講義(續)	논어강의(속)	講義	張嫻	일월시보 5	1935. 09.30	65
강설	海東小學續	해동소학 속	講義	編輯部	일월시보 5	1935. 09.30	75
논설	人道는卽사람의 福樂地이니實行	인도는 즉 사람의 복락지이니 실행		敬齋先生	일월시보 6	1936. 02.09	24

	하여볼지어다	하여 볼지어다					
강설	海東續小學(續)	해동속소학(속)	講義	編輯部	일월시보 6	1936.02.09	109
문예	大學生	대학생	創作	崔文鎮	일월시보 6	1936.02.09	127

\* ‘기사종류’는 앞 절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임

1920년대 유교 단체 기관지에는 일본어 기사가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위 <표8>에서 『유도』의 3건은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경성지점 등의 광고이며,<sup>45)</sup> 『창명』의 1건은 유도창명회 현상논문 당선작인 오즈카 다다에[大塚忠衛]의 「사도론(師道論)」을 게재한 것일 뿐이다.<sup>46)</sup> 일본인의 경우도 축사 등을 한문이나 국한문으로 게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중반의 『일월시보』에는 일본어 논설이나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경학원잡지』에는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처음 발행된 42호(1937.12)부터 일본어 기사가 등장한다. 그러다가 45호(1940.12)부터는 국한문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본어가 주요 언어가 되었다. 1942년에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유도』 역시 국한문 기사는 일체 없이 일본어와 한문으로만 작성되었다.<sup>47)</sup> 1942년 현재 일본어를 이해하고 있는 조선인은 16.61%에 불과했음을 감안한다면, 이 『유도』 역시 지식 유림층의 전시 협력과 단결을 위해 발행되었다고

45) 「東洋拓殖株式會社 京城支店」, 《儒道》 제3호, 1921.7.31.

46) 大塚忠衛, 「本會懸賞論文二等甲當選 京城帝國大學審査 : 師道論」, 《彰明》 제5호, 1925.1.10., 15쪽. 이 논문의 일본어 부분에는 모두 일일이 한글을 병기해 놓았다.

47) <표8>에서 『유도』의 국한문 1건은 「입선 호적정비 표어(한글 4구)」로서 1943년 당시 호적정비사업과 관련한 표어대회에서 입선한 4편의 국한문 표어를 소개한 것이다(「入選戶籍整備標語(鮮語四句)」, 《儒道》 제3호, 1943년 1월, 13쪽).

볼 수 있다.<sup>48)</sup> 1939년 발행된 『명륜』의 경우, 일본어 3건은 「황국신민의 서사(皇國臣民ノ誓詞)」와 축사뿐이다. 전시체제기에 관련 단체 성격이 강한 개성명륜회에서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륜』은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시국관계 기사를 최소화하고 일본어 기사를 쓰지 않으려 한 점이 돋보인다.

### 3. 주요 필진의 상황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 10종, 88개 권호를 통틀어서 다수의 기사를 게재한 인물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실 필진의 경우 잡지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개개인에 대해 분석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전체적인 현황만 간략히 소개한다. 총 6,664건 가운데 필진을 정확히 밝힌 경우에 한정해 중복을 걸러내고 보면, 유교 단체 기관지에 글을 쓴 전체 필진은 총 2,336명 정도 된다.<sup>49)</sup> 이를 기관지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별 필자 수

	중앙					지방				
	경학원잡지	대동사문회보	유도 (1921)	일월시보	유도 (1942)	유도천명회보	창명	인도	유교부식회회보	명륜
필자 수	372	98	362	740	168	66	403	237	16	16
총계(A)	2,478(동일 기관지 내 중복 배제)									
총계(B)	2,336(기관지 간 중복필자 142명 제외)									
	1회 필자 : 1,860					2회 이상 필자 : 476				

48) 한길로, 「전시체제기 유림 잡지 소재 한시의 성격과 그 실상 - 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3, 2017, 130쪽.

49) 이 수치는 편집부나 단체명 등 개별 인물이 아닌 필진과 네임카드 형태로 축사만 실린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된 것이다. 또한 호나 필명 등으로 게재한 경우 중복을 확인하여 최대한 걸러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

위 표에서 각 기관지별 필자는 중복을 모두 걸러낸 수치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2,478명이다. 여기에는 각 기관지 간의 중복 필자가 142명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마저 걸러내고 보면,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필진은 총 2,336명이 된다. 이 가운데 1,860명은 전체를 통틀어 1회만 이름이 확인된 경우이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일회적으로 한시 등을 남겼거나 네임카드 형태의 축사만 실린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2,336명 가운데 476명은 적어도 2회 이상 필자로 등장한다. 또 이 476명 가운데 142명은 하나가 아닌 둘 이상 종류의 기관지에서 필자로 등장한 경우이다.

어쨌든 이 476명 정도가 바로 일제강점기에 유교 단체 기관지의 주요 필진이라 볼 수 있겠다. 참고로 이들 가운데 15회 이상 등장한 열성적인 필진 27명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역시 논설이나 강설, 시문뿐만 아니라 간행사나 축사 등도 모두 포함된 것임을 밝혀둔다.

<표 11>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주요 필진

연번	필자	총 건수	경학원잡지	대동사문회보	유도 (1921)	일월시보	유도 (1942)	유도천명회보	창명
1	權純九	59	26		33				
2	鄭萬朝	57	45	9		3			
3	沈瑯澤	53	33						20
4	鄭鳳時	53	42		9	1		1	
5	金完鎭	52	44		2	2		1	3
6	李容植	48	48						
7	李大榮	43	42				1		
8	李學魯	43	42		1				
9	成樂賢	38	38						
10	呂圭亨	38	34		4				

성도 있다. 따라서 이 수치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11	韓昌愚	36	34	1	1			
12	金東振	30	29	1				
13	李庭珪	27			27			
14	石鎭衡	24			1			23
15	邊昇基	23						23
16	安敎煥	22				22		
17	金允植	21	19		1	1		
18	崔宗範	20			20			
19	金冕秀	19			19			
20	元泳義	19	18	1				
21	朴昇東	17	17					
22	申錫麟	17	1		5	1	10	
23	高彥柱	15						15
24	安寅植	15	8			3	4	
25	魏大源	15	15					
26	尹寧求	15	14			1		
27	李鶴在	15	15					

\* 15회 이상으로 확인된 필자 가운데 지방지인 『인도』, 『유교부식회회보』, 『명륜』에 참여한 경우는 보이지 않음

15회 이상 참여한 필진은 『경학원잡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1920년대 초중반 『유도』나 『대동사문회보』 등에서도 문필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의 『유도천명회보』나 전남의 『창명』에도 자신의 글을 실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잡지들은 모두 관변적 성격이 매우 강한 편이었다.

지방지에 글을 실는 경우는 대체로 그 지역에서 관료를 지내면서 실제로 해당 단체의 탄생에 직접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예컨대 『유도천명회보』의 경우 강원도유도천명회가 조직

된 1921년 8월 원응상(元應常)에<sup>50)</sup> 이어 도지사로 부임한 신석린(申錫麟), 『창명』의 경우 1921년 2월 전라남도 참여관으로 부임한 석진형(石鎭衡)이<sup>51)</sup> 주요 필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창명』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서 호남학회(湖南學會)를 거쳐 경학원 강사로 적극 활동하던 심선택(沈選澤)을 비롯해, 전남유도창명회 부회장 변승기(邊昇基)와 창간호의 편집 및 발행을 맡았던 고언주(高彦柱)도 적극 참여하였다.

위 표를 보면, 192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림 필진들은 사망이나 노환 등으로 인해 대체로 1930~40년대까지 활동을 계속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발간된 지방지 『인도』의 경우만 해도 주요 필진 27명의 글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 1942년 발행된 『유도』에도 안인식(安寅植)과李大榮(李大榮)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 IV. 맺음말

일제강점기 중앙과 지방의 유교 단체는 모두 자체적으로 기관지를 편찬하여 회원과 각지의 유림들에게 자기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각종 논설이나 강설을 통해 총독부의 시정 등을 유학 지식과 결합해 교양하고자 했다. 또 이 기관지들은 전국의 유림들이 작성할 시문 등을 발표할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하였다. 이렇게 유교 단체

50) 원응상은 강원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강원도유도천명회를 조직하고 전남도지사로 옮겨간 후에는 강원도의 경험을 살려 전라남도유도창명회 결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51) 석진형은 1924년 12월 충남도지사로 승진했다가, 1926년 8월 전남도지사까지 올랐다.

를 결성하고 기관지를 출판하는 행위와 이로써 유지 재생산되는 유럽 사회의 다양한 모습 자체가 바로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근대적 변용 과정을 잘 보여준다.

본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에서 발행된 기관지 총 10종에 총 88개 권호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는 경학원의 공식 기관지인 『경학원잡지』(총 48개 호), 둘째는 이 외에 경성에 본부를 둔 유교 단체 기관지인 대동사문회의 『대동사문회보』, 유도진흥회의 『유도』, 조선유교회의 『일월시보』, 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 등 4종(총 27개 호), 셋째는 지방의 유교 단체 기관지인 강원도유도천명회의 『유도천명회보』, 전라남도유도창명회의 『창명』,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에서 발행한 『인도』와 『유교부식회회보』, 개성명륜회의 『명륜』 등 5종(총 13개 호)을 검토 하였다.

이 유교 단체 기관지들의 전체 면수를 합하면 9,000여 쪽에 달하며, 잡지 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정리해보면 전체 기사 건수는 6,600여 건에 달한다. 그리고 이 6,600여 건을 간행사, 축사, 논설, 강설, 문예, 지방(기사), (일반)기사, 법규, 알림, (상업)광고, 이미지 등 11개로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해보면, 문예가 1/3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 기사, 논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것은 논설이다.

다음으로 6,600여 건의 기사들을 언어별로 정리해보면, 전체 기사의 약 94%가 한문 내지는 국한문이었다. 이는 당시 유교 단체 기관지가 계몽 등 대중성보다는 일차적으로 유럽 사회 내부의 지식과 정보 소통의 기능을 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선 사회 내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고조에 영향을 받아 『유도』, 『유교부식회회보』, 『일월시보』 등에서 순 한글로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그리고 전시체제가 들어 『경학원잡

지』나 『유도』(1942)의 기사는 아예 국한문은 배제되고 완전히 한문과 일본어로만 작성되었다.

한편 필자가 확인되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중복을 걸러내고 필진을 검토해보면 총 2,336명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1,860명은 각종 기관지 전체를 통틀어 1회만 등장하며, 476명은 하나의 기관지 혹은 여러 기관지의 각 호를 통해 적어도 2회 이상 등장한다. 이 476명이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주요 필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15회 이상 참여한 필진도 27명에 달한다. 이들은 『경학원잡지』와 1920년대 초중반 『유도』, 『대동사문회보』, 『유도천명회보』, 『창명』 등을 통해 열성적으로 문필 활동을 한 인물이다.

총 10종의 기관지 가운데 『일월시보』와 『인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은 모두 관변적 내지 반관반민적 성격이 강한 단체에서 발행되었다. 따라서 관료 등 다수가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여 그 기사들도 동일한 성격을 띠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일제의 식민통치라는 굴레 속에서 통치주체인 총독부의 통치 목표와 의지에 맞물려 단체를 유지 존속해갔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들은 거의가 일제 협력 단체로 기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 기관지의 내용에도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유림 사회는 국망(國亡)과 국치(國恥)의 충격 속에서 분화해간 측면이 있었다. 기관지를 발행했던 다수의 단체는 대체로 협력적·교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복잡다기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 각지의 유림들은 나름의 지역적 토대 위에서 일제의 통치 정책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림 개인은 적극적인 항일 독립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노골적인 친일 단체에 지도급 인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동안 반일저항과 친일협력을 둘러싼 유림 사회의 양립 현상은 8.15 이후로까지 이어졌다.<sup>52)</sup>

[논문접수 : 2019.12.20., 심사시작 : 2019.12.30., 심사완료 : 2020.1.07.]

- 
- 52) 8.15 이후 좌익계열의 유교 단체로는 명륜학원 출신들 중심의 청년 유교 단체인 대동회(大同會),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산하 단체로 활동했던 전국 유교연맹 등이 있었다. 우익계열의 단체로는 영남 유림 중심의 대동유림회(大同儒林會), 재경 유교 단체인 유교회(유림회), 조선유림성정회(朝鮮儒林聖政會), 전국유림통일회, 조선국민연정회 등이 있었다(이황직, 「해방 직후 유교단체들의 성격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8, 2014, 127~141쪽).

## <참고문헌>

- 經學院, 『經學院雜誌』 제1~48호(1913.12~1944.4).
- 大東斯文會, 『大東斯文會報』 제1~2호(1920.4~1922.10).
- 儒道振興會, 『儒道』 제1~10호(1921.2~1922.11), 제14~15호(1924.12~1925.1).
- 朝鮮儒教會, 『日月時報』 제1~6호(1935.2~1936.2), 日月時報社.
- 朝鮮儒道聯合會, 『儒道』 제1~7호(1942.3~1944.11).
- 江原道儒道闡明會, 『儒道闡明會報』 제1~2호(1922.9~1923.4).
- 全羅南道儒道彰明會, 『彰明』 제1~5호(1923.7~1925.1).
- 儒教扶植會, 『人道』 3~6호(1929.9~12), 8호(1930.10), 人道社.
- 儒教扶植會, 『儒教扶植會會報』 제1호(1930.11), 人道社.
- 開城明倫會, 『明倫』 제1호(1939.2), 開城府廳.
- 『東亞日報』, 『每日申報』, 『中央日報』, 『中外日報』 각호.
- 김봉근, 「일제의 종교정책과 유교 - 전남의 유도창명회와 관련하여」, 『한국종교』 40, 2016.
- 김상기, 「한말 일제하 洪城지역 儒林의 형성과 항일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 연구』 31, 2004.
- 박영미, 「孔聖學的 『湯島紀行』에 대하여」, 『漢文學報』 32, 2015.
- \_\_\_\_\_, 「일제강점 초기 경학 연구의 한 흐름」, 『漢文學論集』 46, 2017.
- 변은진,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 선인, 2018.
- 성주현, 『식민지시기 민족종교와 민족운동』, 선인, 2013.
- 심지연, 『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 격랑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 온 노촌 이구영 선생의 팔십 년 이야기』, 소나무, 2001.
- 이황직, 「해방직후 유교단체들의 성격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8, 2014.

임경석,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논형, 2010.

정욱재, 『한말·일제하 유림 연구 - 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8.

\_\_\_\_\_, 「20세기 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 -李大榮(1874~1950)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6, 2014.

정일균,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사회와 역사』 76, 200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Ⅲ』,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II - 일제강점기 유학계의 친일협력과 친일한시』, 2009.

한길로, 「전시체제기 유림 잡지 소재 한시의 성격과 그 실상 - 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3, 2017.

〈日文抄録〉

日帝強占期に儒教団体の機関紙の現況と性格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nfucian Organizations during the Japanese Emperor's Occupation**

Byun, Eunjin

日帝占期に中央と地方の儒教団体は、独自の機関紙を編纂して会員をはじめとする各地の儒学者に自分の団体の活動を紹介し、さまざまな論説や講説により、総督府の施政などを儒学知識と結合して教養するした。また、この機関紙は、全国の儒林たちが作成した詩文などを発表できる場としても機能した。このように儒林団体を結成して機関紙を出版した行為とそれによって維持されて再生産される儒林社会の多様な姿そのものがまさに伝統的な儒教文化の近代的な変容の過程をよく示している。

本稿は、日帝強占期に中央と地方の儒教団体で発行された機関紙での合計10種の合計88個巻号の全体的な状況を検討したものである。経学院の『経学院雑誌』、大東斯文会の『大東斯文会報』、儒道振興会の『儒道』、朝鮮儒教会の『日月時報』、朝鮮儒道聯合会の『儒道』、江原道儒道闡明会の『儒道闡明会報』、全羅南道儒道彰明会の『彰明』、忠南洪城の儒教扶植会で発行した『人道』と『儒教扶植会会報』、開城明倫会の『明倫』などを対象とした。このうち『日月時報』と『人道』・『儒教扶植会会報』を除いたすべての官邊的ないし半官半民的な性格を持っている。

この儒教団体の機関紙の全体ページ数を合わせると9,000以上の頁に達し、全体の詳細記事の件数は6,600件余りに達する。これ対象に機関紙の全体的な性格を理解するために記事の種類、言語別現況、主要筆陣の

狀況などをまとめた。言語別現況を見ると、全体の記事の57%程度が順漢文、37%程度が国漢文であった。これは当時の儒教団体の機関紙が大衆性より一次的に儒林社会内部の知識と情報の疎通に機能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1920年代半ば以降、完全にハングルの記事も試され、戦時体制期には国漢文は排除され、漢文と日本語のみ出版された。また、確認されている筆者の重複を排除してみると、総2,336人であるが、このうち476人は、少なくとも2回以上重複して参加した主な筆陣ある。

キーワード：日帝強占期, 儒教団体, 經学院雜誌, 大東斯文会報, 儒道, 日月時報, 儒道闡明会報, 彰明, 人道, 儒教扶植会会報, 明倫

Keywords: Japanese Emperor's Occupation, Confucian Organization, Kyeonghakwon (경학원), Journal of Kyeonghakwon(경학원잡지), Confucianist Promotion Association(유도진흥회), Confucianist Clarification Association(유도천명회), Confucianist Changmyeonghoe(유도창명회)

к с і